

경기도 위탁영농 활기

93. 3. 3

18개회사 7천8백ha 경작...수수료 낮아 인기

수원=배경록 기자] 경기도내 위탁영농회사들이 지난 한해동안 회사당 4백38ha의 경작지를 위탁받아 농사를 짓는 등 위탁영농이 활기를 띠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91년 처음 설립되기 시작한 도내 18개 위탁영농회사가 지난해 작업한 농경지는 완전위탁 6백48ha, 부분위탁 7천2백29ha 등 모두 7천8백77ha로 조사돼 회사 1곳당 평균 경작지는 4백28ha로 나타났다.

회사당 평균 수입은 1억1천7백만원인데 이 가운데 인건비, 기름값, 수리비 등 8천4백만원을 빼고 3천3백만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위탁영농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농촌일손이 달리는 데다 영농기피 현상으로 농민들이 위탁영농을 희망하고 있고, 위탁영농회사의 수수료가 일반 농기계 소유 농가보다 10~25% 싼 편이어서 영농비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풀어진다.

이에 따라 현재 18개 읍·면에서 설치돼 있는 위탁영농회사의 설립 바람이 일어 올해 또다시 도내에 29개 회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위탁영농이 더욱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재 38%밖에 안되는 논 정지정리율을 높이고 수확료로 받는 벼를 정부가 모두 수매해주며 벼농사 이외의 작목도 위탁영농에 나서는 등 회사 운영상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